

대결정심으로 더욱 정진해 주시길

전국비구니회 회지 『비구니』 3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중생을 위해 삶 전부를 바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홍포에 여념없는 스님들의 정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 출가, 정각, 전법, 열반 그 어떤 순간에도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동체대비, 구세대비의 마음으로 점철된 팔십 성상이셨습니다.

불제자로서 출가의 대결정심(大決定心)을 냈다면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이정표로 삼고 동체대비의 마음을 주춧돌 삼아 정진 또 정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 말고 출가의 본분사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이러한 본분사로 마주하여도 그 해결이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절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하는 고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인간과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실천의 앞자리에서 출가자의 길은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생각이 오가지만 결국 답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스승 부처님의 대결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 더 선진적으로 여성을 종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문 강원과 선원, 읍원에서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으며, 비구니 별소계단을 운영하며 계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랜동안 문화와 복지에서 소중한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서부터 위대한 불교문화를 발전시키는 일까지, 모범적인 사찰 운영에서부터 21세기 현대 사회에 조응하는 불교학 연구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결정심으로 한국 불교가 사회와 역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비구니회지의 발간을 축하하며 비구니회 소임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